

- 조직사업의 내실화
- 지회조직의 활성화
- 신규사업 조기 정착

발행처 사단법인 한국방송공사 사우회 / 발행인 서병주 / 편집인 김성배 / 우110-310 서울 중로구 경운동 88 수운회관 709 / 전화 (02) 733-2189, 732-8159 / 팩스 (02) 3210-1449



연로회원 오찬회 성황 이인관 고문 등 106명 참석

서병주 회장 - "열심히 사는 게 건강 비결"

2006년 KBS사우회 연로회원 초청 오찬회'가 9월 15일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개최됐다. 낮 1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오찬회는 KBS 사우회 연장자인 이인관(93세) 전 사우회장 등 모두 106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

뤘다. 정도영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서병주 사우회장의 인사말과 사우회 임원 소개, 그리고 전주(류준희, 이승우, 박영기), 부산(고세혁), 춘천(정호섭) 등 지회에서 참석한 회우들의 소개, 하반기 행사 안내,

탐석 행사 화기애애 - 여주 남한강변서



탐석위원회(위원장 김지영)의 하반기 행사가 9월 20일 여주 남한강변에서 있었다. 초가을 좋은 날씨 아래 펼쳐진 이날 탐석 모임에는 40여명의 회우들이 참가,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침 7시반 경운동 사

우회 사무실 앞에서 전세 버스로 떠난 일행은 여주 남한강의 도도한 강물을 함께 벗하며 탐석 2시간 여, 사우회에서 준비한 도시락 오찬시간 또한 화제 만발. 한 두점씩의 수석을 배낭에 간직한 회우들은 신록사와 명성황후 생가에도 들러 역사공부를 하고 상경, 귀가했다.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장에는 먼 길을 마다않고 관심을 보여준 지회 회원들과 김재중, 박석균, 인운섭, 임학송, 정순일 회우 등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얼굴들이 참석했다. 서병주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우 모두 자기 일 찾아 열심히 마무리 짓는 열성이 곧 건강유지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후배들과 손잡으면 바로 그게 후배 사라고 상호 결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찬이 끝난 후 연로회원들에게는 KBS가 마련한 선물이 전달됐다.

제61차 이사회 개최

- 송년의 밤 행사 계획 등 토의 -

제 61차 KBS사우회 이사회가 9월 26일(화) 오후 5시 경운동 사우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창립 기념 및 홈 커밍데이 행사, 방송문화사업 추가 지원 등에 대한 예산 전용에 대한 승인 요청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오는 12월 19일(화)로 예정된 '06 송년의 밤' 개최와 사무요원 해·임용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해서도 토의했다.

지리산 역사탐방

- 전주지회 -

전주지회(지회장 김남규)는 지난 9월 4일 역사탐방의 일환으로 지리산 피아골에 있는 연곡사를 다녀왔다. 하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는 연곡사에서 국보 등을 보고 돌아온 이날 행사에는 지회장 등 10여명의 회우가 참가했다.

회비내신분

2006년/	강동순	김기후	김상겸	김성진	김영춘	김정주
나득용	남승자	박군대	박노실	박영채	박용하	방홍안
서권섭	신수용	안대현	안정식	원종은	윤동원	윤석기
윤예근	이광로	이정춘	이종문	장형일	정연수	정찬무
조상운	조탁래	채수로	최경호	최동주	허건국	
2007년/	이장춘	김성진				
2008년/	김성진					

(8월 22일~9월 13일 회비접수분)

송금계좌 : 128-20-220610(제일은행) 010579-01-000329(우체국)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 조상운 / 134-020, 서울 강동구 천호동 태영동 104-1102 (02-482-8976, 010-9968-9779) chosw14@naver.com
- 강동순 / 140-899, 서울 용산구 후암동 55-30 (02-754-8374, 011-782-8374) kangds@kbs.co.kr
- 김정주 / 706-021, 대구 수성구 단촌1동 단촌보성타운 106-402 (053-743-6572)
- 조탁래 / 701-080, 대구 동구 효목동 545 우창동 202 (053-754-9119, 011-545-9119)
- 김기후 / 449-907,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165 도한마을 현대동 202-903 (031-274-1881, 010-2261-1881) hooya@kbs.co.kr
- 허건국 / 302-121, 대전 서구 둔산1동 1388 햇빛마을 903 (042-385-4035, 017-407-4031)
- 윤석기 / 560-84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570-15 극동동 가-608 (063-223-5287, 011-682-5287)
- 박용하 / 138-773,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양동 5-1207 (02-6417-1789, 010-5678-6899) stdo@kbs.co.kr
- 윤동원 / 158-755,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5단지 신시가지동 511-1204 (02-2647-7774, 011-225-5234) ydw@kbs.co.kr
- 김영춘 / 423-719, 경기 광명시 철산동 우성동 107-703 (02-2686-3345, 011-720-4495) yang44@kbs.co.kr
- 장형일 / 412-27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2단지 부영동 611-703 (031-964-0796, 011-729-0796) ch00796@yahoo.co.kr
- 정찬무 / 138-902, 서울 송파구 거여2동 거여2단지 210-102 (02-407-8338, 011-223-9393) cmjung@kbs.co.kr
- 남승자 / 140-774,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 자이 107-1703 (02-797-1007, 011-9049-6452)

사보·홈페이지 원고 모집

매월 발간하는 사우회보와 항상 떠 있는 홈페이지에 실릴 회우 여러분의 옥고를 환영합니다

- 수량 : 회보 - 200자 원고지 5매 이내 / 홈페이지-무제한
- 마감 : 회보 - 매달 15일까지 / 홈페이지 - 수시

◆본회 홈페이지 : www.kbssau.or.kr/KBS 사우회 ◆E-mail : kbssau@kbs.co.kr ◆세미나실 Tel 781-8362, FAX 781-8269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창조는 예지씨의 영원한 관객입니다

두 살 때 망막에 종상을 입고 세상과 단절되었던 김예지씨
세상에 한 걸음 내딛기도 무서웠던 예지씨가 세상을 무대로 피아니스트의 꿈을 키워 갑니다
언제나 예지씨의 곁에서 끝없는 연습을 끝까지 기다려 준 창조
창조는 예지씨의 영원한 관객입니다 '창조야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 삼성화재

피아니스트 김예지씨와 관객 창조

삼성화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기증 사업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Happy Forever 삼성화재 SAMSUNG

1588-5114 삼성화재의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samsungfire.com

<문화산책>



이인홍

공산당이나 공산주의자를 꺼안고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의 숙명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초체

제(超階級制)이데올로기라고도 한다. 공산주의는 자신에 대한 반대를 용납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말살을 혁명의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에는 '반동'이 없지만 공산주의는 '반동'이든 '죽일 죄'다. 1997년 프랑스에서 발행된 <공산주의 흑서(黑書)>는 *소련 2,000만, *중국 6,500만, *월남 100만, *북한 200만, *캄보디아 200만, *동유럽 100만, *라틴아메리카 15만, *아프리카 170만, *아프가니스탄 150만, *기타 공산당의 살인 1만, 도합 9,436만 명이 학살되었다고 밝혔다. 6·25 때 전사한 한국군과 유엔군, 그리고 민간인 사망 119만에 북한군 52만과 중공군 90만을 합하면 1억에 가깝다.

공산당을 '빨갱이'라 한다. 다른 언어권에서도 '빨갱이'로 쓴다. 연유는 러시아 혁명 때 사용된 적기(赤旗)를 공산당이 '이미지 색깔'로 한데 있다. 공산주의는 본래 빨간색의 색깔이념이다. 우리 국어사전은 '빨갱이'를 '공산주의자나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비속한 말'이라 했다. 케임브리지 영

어사전이 '1950년대에는 공산주의에 대한 인민의 공포와 증오(원한)가 "빨갱이 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Better dead than Red)"는 말로 표현되었다'고 한 해석과 상통한다.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우리들의 '빨갱이 원한'에는 '천륜도 인륜도 모르는 악랄하고 잔인한 인간'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그

학생들과 대화하고 기자회견도 가졌다. MBC와 SBS, YTN 등 전파매체와 한겨레, 동아, 중앙, 한국, 경향이 보도했다. 강만길씨는 자기가 서대문형무소에 구속된 일이 있다고 자랑하고 김근태 대표는 "감개무량하다"고 했다. 시이는 우리를 "역사적 동지"라고 말하면서 <아까하다(赤旗)>서울지국 개설을 희망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日本共産黨

리고 이탈리아, 캐나다, 독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같은 민주국가에서 민주주의와 공존하고 있는 공산당이 있지만 사람을 그렇게 무지막하게 죽이지 않았다. '악랄한 빨갱이'의 표본인 김정일이는 거꾸로 우리에게 "민주주의 하라"고 욕지르고 있다. 진짜 민주주의를 만끽하면서도 김정일 공산당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불가사의다. 중국을 좋아 하지만 그 곳 공산당도 독재체제인 민주전정(民主專政)이다. 일본에 공산당이 조직된 것은 1922년이다. 활동은 단속적이었다. 그 일본공산당 당수인 시이(志位和夫)위원장이 지난 9월 5일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와 며칠 묵고 갔다. 입체정 국회의장과 김근태 열린우리당 대표,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 대표,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을 만났다. 민노당은 호텔에서 회담을 했다. 시이 위원장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관람하고 그 곳에서 강만길씨와 대화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동북아 3개국 가운데 공산주의 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러시아 혁명(1917) 이전에 공산주의 운동이 있었고 일본 공산당 조직공작의 주동자도 코민테른의 밀사 임보(林某)라는 한국인이었다. 1920년 코민테른은 조선과 중국, 일본에 공산당을 조직하기 위해 러시아 공산당원 보이친스키(1893-1953)를 코민테른 동방국서기(東方局書記)로 임명, 상해(上海)에 파견하고 임(林)을 공작밀사로 보냈다. 보이친스키는 국공합작 공작의 주모자다. 일본을 왕래하면서 협조자를 탐색 중이던 임이 미국에서 일본인의 혁명선전연맹에 가입한 사회주의자 근도(近藤榮藏:1883-1965)를 발견했다. 그를 상해로 불러 공산당 조직을 지령하고 매월 2만圓의 공작비를 지급키로 했다. 거액의 일시금을 받아 갖고 시모노세키(下關)로 귀국했다. 미행 형사에게 체포되었던 근도가 무사히 빠져 나와 1921년 호민공산당(曉民共産黨)을 조직했다. 그리고 1922년

일본공산당이 창당되었다. 한국의 공산당은 해외에서 먼저 태동되었으나 갈래가 복잡하다. 그러나 출발을 꼽는다면 1918년의 한인사회당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중국은 1921년에 비로소 공산당을 창당했다. 일본학계에는 일본이 3개국 중 꼴찌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패전후의 일본 공산당은 사실상 김천해 등 재일조선인이 운영했다. 그래서 친일단체가 일본군의 지하비행장 건설자금으로 각출한 150만圓과 강제노동자 체불임금 4,366만圓, 조선장학회 기금 등 여러 가지 자금을 운영비에 투입했다. 그리고 조선인을 당원으로 만들어 민족대책부에 집결시켰다. 6·25때는 조방대(祖防隊)를 만들어 군사투쟁을 전개했다. 일본 공산당은 북한의 핵과 테러와 납치와 범죄, 그리고 김일성 우상숭배를 이유로 북한과의 관계를 단절한 상태다. 한국의 친북죄파들이 1987년 11월의 KAL기 폭파가 한국의 자작자연이라고 고소를 제기하고 심지어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진상규명을 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일본 공산당은 88년 1월 당시의 미야모토(宮本龍治) 의장의 연설과 당 공식기구의 결정으로 북한 공작원에 의해 폭파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웅산 폭파사건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는 친북죄파의 조국이 어느 쪽인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지금의 일본 공산당은 중의원 9석, 참의원 9석, 지지율 1.7%의 왜소정당이다.

(본회고문, KBS사장, 문화정보부 장판 역임)

고침 : 문화산책의 연재번호가 잘못되어 바로 잡습니다. 10월호의 ⑬이 맞습니다.

회우여러분은 지금...

동정

- ◆ 故 강찬선 전 회장의 딸 경화씨(51) /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의 부판무관 임명. 이 자리는 OHCHR의 두번째 직책. 강경화씨는 KBS영어방송 아나운서→국회의장 통역관→외교부 장관보좌관→대통령 통역→뉴욕대표부 공사를 거쳐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으로 일해왔다.
- ◆ 김준빈 / 6월 16일부터 3개월간 미국·캐나다 등지를 여행하고 귀국
- ◆ 김 현 / 장남인 김환수 신부가 10년간의 보좌신부를 끝내고 강서구 소재 천주교 신월1동 주임신부로 부임
- ◆ 박영석 / (사)한국정보기술 사용자 협회장으로 9월 1일 티타늄 신소재 제조업인 주식회사 MTG(Material Technical Innovation Group)설립 대표이사로 취임. 사무실: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67-3 건설빌딩302 TEL: 02)540-3617
- ◆ 박중흠 / (사)전국 5백만

- 박씨 대종친회 총본부 부회장에 재추대 되어 7년째 연임
- ◆ 박창학(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제2기 동창회장) / 동창회는 9월 20일 저녁 여의도 백화점 '향원'에서 가을 친목회 개최
- ◆ 안평선 / 대경대학교 신방·연극학과 합동 수업시간에 '1950년대의 소극장 운동' 특강. 무용전문 월간잡지 '춤'지(발행인 조동화) 9월호부터 칼럼 '방송살롱'을 연재
- ◆ 이동순 / 8월 24일 방송위원회 시청자 고충 처리위원회 위원에 위촉
- ◆ 이성영 / 방송위원회 상품광고심의위원 위촉
- ◆ 이흥주·이동순·양성수 / 9월 1일 합동사무실을 오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5 대우 메종리브르 603호 TEL.786-3108
- ◆ 장중훈(청송회 회장) / 9월 21일 오후 삼일빌딩 스카이라운지에서 정기 모임
- ◆ 정용석(FM분당방송대표) / FM분당방송개국 1주년 기념 음악회가 9월 9일

- 2000명의 분당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분당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열렸다.
- ◆ 최창봉·최상현·안평선 / '제5회 김천 가족 연극제' 심사(9월 23일~9월 29일)

자녀결혼

- ◆ 김기천 / 아들(9/ 2)
- ◆ 원성연 / 딸(9/16)
- ◆ 이용완 / 아들(9/17)
- ◆ 김상용 / 딸 10월1일 낮 1시반 KBS신관 예식홀
- ◆ 김지영 / 딸 10월14일 낮 1시 영등포구 신길3동 영동교회

부음

- ◆ 정창기 / 빙모상(9/ 8)
- ◆ 김종식 / 빙모상(9/14)

고회

- ◆ 한상우 / 9월 1일
- ◆ 정종진 / 9월 1일
- ◆ 김성순 / 9월 6일
- ◆ 최경호 / 9월 10일
- ◆ 황능연 / 9월 15일
- ◆ 안평선 / 9월 20일
- ◆ 김승한 / 9월 23일

주소변경 회우

- 권순영 / 600-807, 부산 중구 부평동2가 37-5 신우기원3층
- 박홍수 / 411-764,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573 대화마을 동문④ 307-501
- 서희근 / (019-9720-2496)
- 손춘식 / 157-734, 강서구 화곡6동 1145번지 우장산 롯데캐슬 106-801
- 윤의홍 / 158-856, 서울 양천구 신정5동 872-6 펠리스빌①1동 705호
- 이후재 / 150-79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한양④ B동-104호 (011-720-6756) hoo416@hanmail.net
- 임진철 / 157-281, 서울 강서구 내방산동 낙원연립 306호
- 조영숙 / 361-201,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분평주공6차 603-1104 (043-256-6700)
- 김명호 / 412-511,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719 푸른마을 동익④ 301-2202 (031-965-4067, 011-9138-6067) mhkim4438@yahoo.co.kr
- 김승한 / 487-820, 경기 포천군 소흘읍 송우리 1-1지구 대방노블랜드② 101-110(석양마을) (031-543-1126, 016-213-6603)
- 이영운 / 446-722,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C-4 호수마을 서해그랑블② 1108-202 (031-275-5798, 011-207-6359)
- 이천규 / 415-747, 경기 김포시 장기동 전원마을 월드메르디앙④ 404-603 (031-987-1290, 011-720-1295) cldee@kbs.co.kr
- 강명수 / (직장)032-446-0220 mskang47@naver.com
- 박근대 / 서울 양천구 목동2차 우성④ 211-902호
- 우제탁 / (031-395-0439, 010-2200-4437)
- 원성연 / 서울 서초구 반포④ 74-203
- 김두석 / 411-330,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 아이파크④ 503-803 KBS사우회 이사
- 김중현 / 501-081, 광주시 동구 계림동 478-30 (062-228-6112, 016-681-6112)
- 박중흠 / 621-020, 경남 김해시 동산동 1014 (010-6798-2557)
- 박창근 / 411-330,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1258 숲속마을 803-1605 (031-904-0467)
- 송영수 / 150-780,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우성④ 207-901
- 연준환 / 420-020,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포도마을 827-303 (011-9040-1689)
- 유원길 / 302-767, 대전 서구 가수원동 계룡④ 3-907
- 이윤하 / 121-232, 서울 마포구 망원2동 509 망원휴먼빌④ 102-704 (02-338-7949, 010-8306-0187)
- 채수로 / 463-030,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장안타운 112-902 (031-781-0159)
- 최종림 / 415-010, 경기 김포시 감정동 676 한국④ 105-210 (031-991-2356, 011-720-2648)
- 홍순택 / 122-080, 서울 은평구 신사동 오대안빌라 가동 203호 (02-387-3137)
- 김광균 / 011-9025-0347
- 김성배 / kimsb29@kbs.co.kr
- 김 영 / (033-261-8950, 018-251-8950)
- 서인형 / (010-987-6690)
- 오승룡 / (010-6338-3512)

(접수순)

社番 4番의 그때그 이야기 4

글 : 이 정석 회우

방송경력 너무나 길다

나와 NHK M씨와의 인연은 길다. 그가 서울지국장이었던 5.16때 처음 만났다.

군사혁명이 나고 국내신문·방송기자는 반도호텔 일본 특파원 사무실이 피서지나 마찬가지로 일본말 하는 한국기자들은 그곳을 자주 찾을 수밖에...

그때 사관 일본 기자 중 NHK의 M씨였다. 3년 후 그는 도쿄 본사로 돌아갔다. 그 뒤 나는 KBS보도국장을 지내고 하버드 대학 니먼 연구생(Nieman fellow)을 거쳐 1976년 주영 특파원이 되어 런던에 부임했을 때 M씨는 NHK 런던 지국장이 아닌가!

영국에서 가까워진 우리는 서로 집에 초청해 오갔다.

그 후 나는 서울본사 국제국장으로 옮긴다. 그도 후에 NHK 국제국장이 되었다. 두 사람의 기구한 인연은 또 계속되어 내가 1979년 워싱턴 지국



장에 가니 또 그가 NHK워싱턴 총국장. 그 후 워싱턴을 떠난 그는 NHK 나고야 방송국장이 되었고, 1985년 나는 KBS 올림픽 본부장 발령을 받고 서울에 온다. 얼마 후 그는 KBS 보다 정년이 빨라 55세 때 NHK를 떠나서 도쿄 근처의 여자 단대(短大-우리의 전문대에 해당)교수가 됐

日 매스컴의 평양지국 설치 경쟁 피해 본 한국정부

다. 어느날 여대생 한 그룹을 이끌고 서울로 KBS사무실을 찾아왔다. 나는 옛 친구와 그 제자들을 잘 대접해 보냈다. 현관에서 작별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형, 내가 졌습니다"(마케 마시파)라고 해 나는 어리둥절했다. 그는 설명이나 하듯이 자기가 NHK 나고야 방송국장시절 나고야 현지 올림픽 유치위원회와 함께 올림픽 유치에 진력했으며, 만약 88올림픽이 나고야로 결정되었다면 내정된 자기가 NHK나고야 올림픽 본부장에 취임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작별인사와 함께 남기고 서울을 떠났다.

그 뒤 그의 소식은 표면하다. 나이

는 나보다 3~4년 위인데 아직 나는 그의 마지막 말을 반추하듯이 머리에 떠올리며 NHK방송을 볼 때마다 그를 생각하곤 한다.

도쿄대 출신인 그는 구 일본해군 대좌(대령)의 아들이며 야스구니 신사 참배 찬동자인 국수주의자였다.

또 한사람의 일본 기자는 내가 국

제국장 시절에 만난 Y기자. 말없고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많은 접촉은 없었으나 그가 서울근무를 마치고 남미 어느 나라 주재 특파원으로 떠나기에 앞서 그에게 송별회를 베풀어 주었다.

한국인에게 못된 짓 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평소와는 달리 대단히 우울한 표정이었다.

술 몇 잔을 비운 후 그는 결심한 듯 속내를 내 비쳤다.

"이 국장, 난 서울 특파원 마지막 몇 달은 정말 한국 사람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다. 하루는 본사 데스크에서 밀명서면이 왔는데 그 내용인즉..." 그가 고해성사 하듯이 하는 말은 이러했다.

당시 일본 언론계는 이른바 리버럴한 인사들 사이에 반미친북적인 상황에 흐르는 사람이 많았다. 조총련과 적극적으로 가까워졌으며 정기적으로 축구시합도 가지고...

일본 방송·신문이 평양에 지국을 설치하고자 경쟁하다시피 했던 그런 시절이다.

일본 본사가 서울 특파원에게 내린 비밀지시는 '북한 정권의 일본 담당관이 들도록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리포트를 많이 보낼 것. TV는 도쿄에 나와 있는 한국대사관이 보니까 피하고 매체는 라디오를 주로 이용하고 시간대는 청취율이 낮은 시간대인 새벽 5시·6시 뉴스시각을 택할 것' 등이다.

본사의 요청은 박정희 정권이 곧 경제적으로 거덜날 것 같다는 보도를 할 것 등이 비밀지령이었다고 고백했다. 고백을 마친 Y기자는 "미안합니다. 이제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고 웃으면서 헤어져 그는 남미로 떠났는데 얼마 뒤 그가 위암으로 별세했다는 비보에 접한다.

서울근무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이었나..?



選擇的 道德主義의 함정

글 : 오용근 회우(한서대 교수)

요즘 세태에서는 규정이나 법규의 적용에서 유난히 타인에게는 엄격하고 자기에게는 느슨하거나 아예 예외로까지 인정하는 소위 '선택적 도덕주의'가 지나치게 만연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제는 일상사가 되어버린 교육과 노동현장에서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현실진단과 정책수립 집행 과정에서 격렬한 소모성 논란들, 더 나아가 대북 문제나 한미 FTA, 전시 작통권 문제 등 안보외교와 관련된 상반된 주장과 갈등 등 이러한 유(類)의 갈등과 대립의 근저를 헤쳐 보면 예외없이 결국은 '나만은 예외'라거나 심지어 '나만 옳다'는 식의 선택적 도덕주의, 더 나아가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만나게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개인은 물론 국가와 사회, 또는 집단은 그 구성원들이 지닌 창의적 능력과 에너지 한데 결집시켜 발전적으로 창출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과 공동체간에 대립과 분열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일찍이 옛 우리네 선조들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이라 하여 치열한 단련과정을 통한 자기 연마, 더 나아가 자기완성을 사람으로서의 일차적 기본 도리이고 절차로 삼았고, 규정이나 법, 남의 이목 등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지켜야 할 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신기독야(慎己獨也) 즉 '홀로 있을 때를 더욱 삼가야 한다'는

정신을 핵심적인 생활 철학으로 삼았다. 그래서 많은 선인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하지만 자기를 규제하고 지켜나가는 면에서는 가을서리처럼 차갑고 엄격하게 한다는 대인춘풍(待人春風) 지기추상(持己秋霜) 즉 이 타극기(利他克己)의 '자기 다스림' 정신을 제일의 생활 덕목으로 지켜왔다. 오늘날 각 분야에서 지극히 혼란스러운 현 세태는 바로 선인들이 지켜 내려온 소중한 정신적 바탕과 덕목을 외면하고 당장 눈앞의, 자기들만의 작은 이익에 탐닉해 선택적 도덕주의의 함정에 빠져든 결과에 다름 아니다. 방송계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특정 프로그램들에 대한 끊임없는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는 예외없이 '나만 옳다'는 식의 선택적 도덕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본다. 방송 특히 공영 방송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은 그 자체의 성립요소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더욱 객관적 판단기준이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 자체를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설정하는 등의 근원적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향상, 발전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선택적 도덕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예외 없는 엄격한 원칙의 적용과 실천, 그리고 각자의 숭수수범에서부터 그 해법을 찾아야 할것이다.

“홀홀 다 털고 쉬세요”

- 金元昌형 영전에 -

형의 비보는 우리들에게 충격과 큰 슬픔이었습니다. 형이 드리운 그늘이 그만큼 넓고 길기 때문입니다. 형은 우리나라 TV시대의 길목을 여는 1960년대에 KBS에 들어왔습니다. 꽤 어려운 일들이 신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V전파가 각가정에 처음으로 전달되고 따라서 그 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그리 여유롭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신료를 선뜻 내 놓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았지요. 그때의 KBS-TV 운영재원은 전적으로 수신료에만 의존했던 과도기였습니다.

형은 그렇게 KBS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형의 성실과 근면성은 타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조그만한 흙만 있어도 입방에 오 르내리는 상 황속에서도 형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이는 덕을 지닌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은총입니다. 이렇듯 형은 덕과 능력을 겸비한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얼마전 몇몇 동료들이 모여 조출한 자리를 가졌습니다. 형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슬잔만 놓여졌지요. 우리들은 번갈아가며 그 슬잔에 술을 부었고 또 슬잔을 비웠습니다.

金형!! 세월은 아무렇게나 휘젓고 지나가는가 봅니다. 영고성쇠를 다 한 가루수의 잎

새가 한잎 두잎 나엽지던 89년 가을 어느날 형은 정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결을 표연히 떠나 버렸습니다. 퇴직하면 영 족적을 감추어버렸던 계열의(업무국) 선배들에게 늘 아쉬움과 연민을 느껴온 우리들이었습니다. 안팎으로 내 세울만한 뚜렷한 발자취가 없는 우리였기에 더욱 그랬던가 봅니다. 그런 우리들이 형의 퇴임이 계기가 되어 친목모임인 '형송회'를 갖게 된 것은 무척 뜻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들을 하직하기전 고회의 노구로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사우회 낚시 위원장의 소임을 다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金형!! 참 그림고 보고싶네요. 과묵하고 표정이 없는 가운데 흘러나오는 특유의 너털웃음, 늘변같은 투박하고 구수한 사투리, 이제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이 오직 추억으로만 남습니다. 세월은 그저 흘러만 갈 뿐입니다.

병상의 모진 고통, 잡다한 번뇌이전 홀홀 털어 버리시구려.

형의 명복을 두 손 모아 빌니다.

글 : 최동호 (사우회 이사)



낚시 위원장이었던 고인의 지난날

요즘 어떠세요?

박인채 회우와 차 한잔 나누며

합창은 바로 화합의 정신
 다가오는 2007년은 전파개시 80년이 된다. 또 KBS어린이 합창단 창단 60년을 맞는다. 이렇게 기념비적 해가 되는 2007년을 몇 달 앞두고 매우 바쁜 사람이 있다. 바로 박인채 회우다. 대부분의 방송 출신이 퇴직하고 회사를 나오면 할일이 없는데 반해 KBS 사우회 이벤트위원장 겸 어린이들을 모은 섹드리합창단 단장 등을 이끌고 있다.

“세월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슬쩍 지나가는 농담 같지만 새벽부터 KTX를 타고 서울에서 목포까지 동행하며 세시간 남짓 이야기를 들어 보니 그야말로 바쁘다는 표현이 딱 떨어진다. 박인채 회우는 KBS 사우회 합창단을 사실상 주도해왔다. 음악교실을 만들어 지난 6월 1일 ‘홈커밍’에서 인콰으로 갈증을 받았었다.

“합창은 서로 만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는데 편하고 그 마음을 통해 조화 시킬수가 있는 것이 노래죠. 합창은 화합의 정신입니다. 자기 소리를 죽이고 남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회성 프로그램이 곧 합창이죠”

박인채 회우는 KBS 사우회 송년의 밤을 앞두고 재도약의 계기를 삼켰다며 의욕이 대단하다. 명칭도

‘KBS 골든 콰이어(GOLDEN CHOR)’가 좋겠다고 했다.

섹 어린이 모아 섹드리합창단

박인채 회우는 섹어린이들로만 구성된 ‘섹드리 합창단’을 2003년 8월 창단했다. 2004년 8월 31일 하얏트 호텔에서 ‘낙도 어린이 자선의 밤’ 공연을 시작으로, 올 어린이 날에는 청와대 공연, 8월18일부터 8월10일간

기아 아동돕기’에 성금까지 전달했으니 빛을 더욱 발했다.

오는 10월 20일에는 카자흐스탄 국립교향악단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협연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바쁜 속에서도 우리나라 동요사를 다큐 뮤지컬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반달’에서 ‘하늘나라 동화’까지 역사와 시대적인 배경을 동요를 통해 조감하는 거창한 계획이다.

“동요(童謠) 없으면 가정도 없다”



의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등 미국 공연, 9월11일 울산 장애인체육대회 초청공연 등을 연거푸 마쳤다.

“옛날 빛바랜 사진첩을 본 것 같습니다” 시애틀 총영사는 섹드리 합창단이 펼친 뮤지컬을 보고 이렇게 말했고 모든 매스컴도 순수한 섹 어린이들의 동심과 그동안 합창으로 승화된 예술성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세계

정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 박인채 회우의 별명은 ‘크레믈린’. 말을 잘 안해서 붙여졌다. 항상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 또한 특징 중의 하나. 어린이와 함께 평생 생활하니까 늙은 늙어서인가, 때로는 ‘사고가 트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도 받는다. 지금도 KBS 1TV 동요 프로그램 <누가 누가 잘하나> 심사위원이다. 1947년에 ‘서울방송 노래회’가

만들어졌다. KBS 어린이 합창단’의 전신이다. 이규도, 송현식, 고 이은렬, 유병무, 이수인, 김방욱, 송승환 등이 여기를 거쳤다.

61년 행정서기 시험에 합격해서 중앙방송국 행정서기보로 어린이 프로그램 <누가 누가 잘하나>(대본 노정팔) 보조 연출을 시작으로 99년 정년을 하기까지 어린이와 50년의 긴 인연을 맺었다.

“우리 애 맞아!” 섹마을 학부모들은 수업료도 없고, 돈 한푼도 안내면서 청와대, 미주 공연 등을 하고 돌아온 자녀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고 그동안 가졌던 의혹을 풀었다.

“동요가 없으면 가정도 없다”며 동심 속에 사는 박인채 회우는 섹드리 합창단에 대한 주변의 후원이 고맙기 그지없다. 숙소와 연습장을 제공해주는 신안교육청,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는 신안군청 등과 방송과 신문 등이 섹어린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몸담아온 KBS가 타 방송사보다 협조적이지 않을 때 느껴지는 허탈감을 때로는 맛보았다고 했다.

윌리엄 워즈워드는 <무지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다. 신안군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생 32명이 한평도 빠지지 않고 연습장에 모인 면면을 보면 이들이 다름아닌 내일의 기둥이자 꿈과 희망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바로 이것이 박인채 회우를 동심의 세계에 머물게 하는 마력이 아닌가 싶다.
 글·사진 : 길 주

방송비평

▲TV소설- 방송 : KBS 1TV 월~토(08:05~08:30)

연속 세 작품이 일부이쳐(一夫二妻)로 설정. ‘그대는 별’ 송기원(남편)-고두심(처) 이웅경(첩). ‘고향역’ 심양홍(남편)-남윤정(처). 김수연(첩) 감이 되어 만나리’ 이효정(남편)-김미숙(처) 견미리(첩) 1960년~70년대에 걸친 이야기인데 닳은풀 설정에 수궁이 안간다. 두 작품은 때로 한집에 동거하기도 하는데, 세 작품째 이런 가족 이야기를 보는 시청자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신기하고 재미도 있었지만 그 보다는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8·15기획 팩션드라마 2부작

「KBS스페셜」(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

방송 : KBS 1TV 8. 26(토)27(일)

PD : 김무관 글/구성: 오정오

연출 : 신상용, 유동중

우국열사 박열(본명 박준석)과 일본여인 가네코 후미코가 일본천황 암살 계획을 함께 모의한 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의 팩션드라마. “오월의 두초상”에 이어서 두번째 보는 작품인데, 사실을 기초로 상상력의 팩션이 적절히 구성되어 허구적인 느낌을 배제한 팩션이었다. 객관적인 복수 내레이터에 주요 인물들이 주관적인 설명을 붙여서 증언으로서의 신뢰감을 주고 이해에도 도움을 주었다. 일제항쟁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일본인물들의 성격과 행위가 대체로 정형화 되어왔는데 이 작품에서는

인성과 고뇌를 성격적으로 표현시킨 것이 특색이었다. 폭탄입수 계획만 세우다가 검거되고, 일본인들이 폭압적인 대립관계를 보이지 않아서 폭발성과 긴장감이 약할 수 밖에 없었다. 가네코는 친한적인 열사 수준으로 알려졌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

팩션드라마

가네코 후미코 · 서울 1945

관계까지 소상하게 노출시킴으로써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수도 있었다. 장덕수(실산) 폭행사건(1923. 5)은 스토리 진행에 필수적인 조건으로 보이지 않았다. 연기자들이 새 얼굴들로 약간 어색한듯 하면 (한국방송인회 상임 부회장) 중심을 편향적으로 구성해서 신선감을 주었고, 가네코(반민정) 역의 연기는 전편을 안정감있게 끌어주었다. 팩션은 위함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팩션부분에 철저한 검토가 따라야할 것이다

▲대하드라마 서울1945

방송 : KBS 1TV 17(토)~910(일) 7회

PD : 이성주, 정영철

극본 : 이한호, 정성희

연출 : 윤창범, 유현기

1933년 일제시대부터 광복, 분단, 6.25전쟁까지 이념의 갈등, 동족상잔의 비극 등 사실 기록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창작한 드라마. ‘제작진들이 그 시기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에기에 우려가 되는데 기우로 끝났으면~’(2월 1일 회보 46호). ‘편향적 구성과 연출된 드라마를 보면서 한

편에서는 분노하고 그 시대의 인식에 대해서 의아하고 혼란스러웠을 것~(7월1일자 회보 51호)

두번의 의견을 밝힌 바와 같이 이 드라마는 출발부터 종결때까지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새삼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래도

대하드라마

대하드라마



인평선 회우

근본적인 몇가지 접란 확인하고 싶다. ▲작가와 연출이 마치 죄악이념에 기울은 듯, 북의 남침으로 도발된 한국전쟁을 남북 인민해방을 위한 투쟁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중심을 편향적으로 구성한 점. ▲양측 군이 대치 상태에서 사격중지 명령으로 휴전상태를 만드는 점. ▲용문산에 인민군 유격전 거점 설치의 개연성의 문제.(6.25전에 태백산맥을 타고 공비출몰) 퇴각하는 인민군 패잔병들을 강력하게 부각시킨 점. ▲결정적인 문제는 국군의 애국수호와 승전보를 소극적으로 처리한 점.

6.25전쟁은 몇 백년전의 과거사건이 아니고 참여 관련 당사자들이 아직 생존해서 증언하고 있는 현재 진행중인 사실이다. 많은 시청자들은 당혹감속에 의혹마저 느꼈을 수도 있다.

▲가요무대

방송 : KBS 1TV 9. 4(월)

PD : 김승우

지문: 김점도, 김진성

<추억의 라디오>

광복을 맞이하고 6.25전쟁을 겪으면서 세상의 변천과 세월에 따라 대중가요도 유행처럼 라디오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다.

1948년 ‘해수의 네온가’ (옥두옥)로부터 ‘그때 그사람’ (1978)까지 라디오 전성기의 가요 18곡 선곡. 거의 20여년간 가요의 별들이 떠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1950년대는 백설희, 60년대 부터는 이미자가 큰 별로 라디오 가요의 중심을 이어 왔다고 볼수 있다. 그런데 두 가수의 노래가 한국도 선곡되지 못한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됐다.

방송 : KBS 1TV 9. 18(월)

연출: 강영원

<기차는 노래를 싣고>

추석을 앞두고 귀성길에 낭만을 실어줌. ‘인생선’ (남인수)은 1942년에 ‘청년고향’과 함께 발매된 격조있는 가요곡으로 고향충을 위한 진귀한 선곡이었음.(가요무대에서 처음 듣는 듯?) ‘이별의 종착역’을 들으면 1950년대 후반에 매혹적인 저음의 손시향을 떠올리게 되는데, 젊은 가수의 리메이크도 혼란스러운 중에 박진광의 파열음(?)은 매우 부담스러웠다. 가수의 개성이 짙지만 가요무대 단골 팬들은 원곡에 가까운 노래로 듣기를 희망할 것이다. ‘서울행 삼등실’ (남성봉)도 오래 간만에 선곡. 광주-이리-대전을 경유했는데, 원곡은 시발점 ‘여수’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닌지?